



4 데이터 전송의 기초

쉽게 배우는 데이터 통신과 컴퓨터 네트워크

학습목표

- ✓ 전송과 교환 시스템의 구조와 원리
- ✓ 프레임 전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유형
- ✓ 문자 프레임과 비트 프레임의 구조
- ✓ 오류 검출 코드의 종류와 원리를 이해
- ✓ 생성 다항식을 이용한 오류 검출 방식



3절. 프레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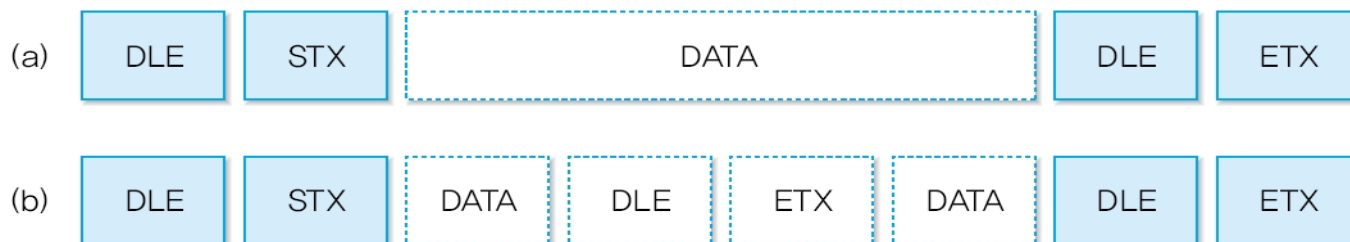
□ 프레임(Frame)

- 송수신 호스트 MAC주소, 제어 정보, 체크섬 등의 정보
- 내부 정보의 표현 형태 : 문자 프레임, 비트 프레임

□ 문자 프레임(Character Frame)

- 프레임의 내용이 문자(8비트 ASCII 코드)로만 구성됨
- IBM의 BSC 및 ISO의 Basic 프로토콜에 사용
- 프레임의 구조
 - 프레임의 시작과 끝에 특수 문자 사용 [그림 4-13(a)]
 - 시작: DLE / STX, 끝: DLE / ETX
 - 전송 데이터에 특수 문자가 포함되면 혼선이 발생 [그림 4-13(b)]

DLE : Data Link Escape
STX : Start of Text
ETX : End of Text



[그림 4-13] 문자 프레임의 구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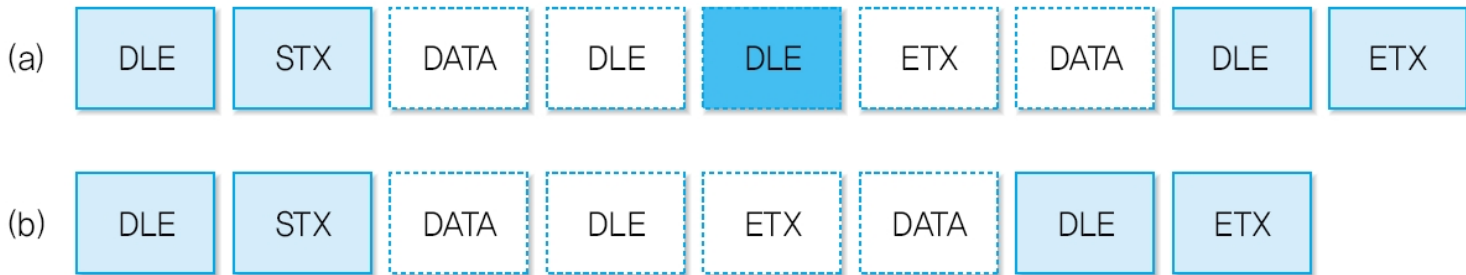


3절. 프레임

□ 문자 프레임

■ 문자 스템핑(Character Stuffing)

- 문자 프레임 전송과정에서 제어 문자를 추가하는 기능
- 송신 호스트: 데이터에 DLE 문자가 있으면 강제로 DLE 문자 추가 [그림 4-14(a)]
- 수신 호스트: 데이터에 DLE 문자가 두 번 연속 있으면 DLE 문자 삭제 [그림 4-14(b)]



[그림 4-14] 문자 스템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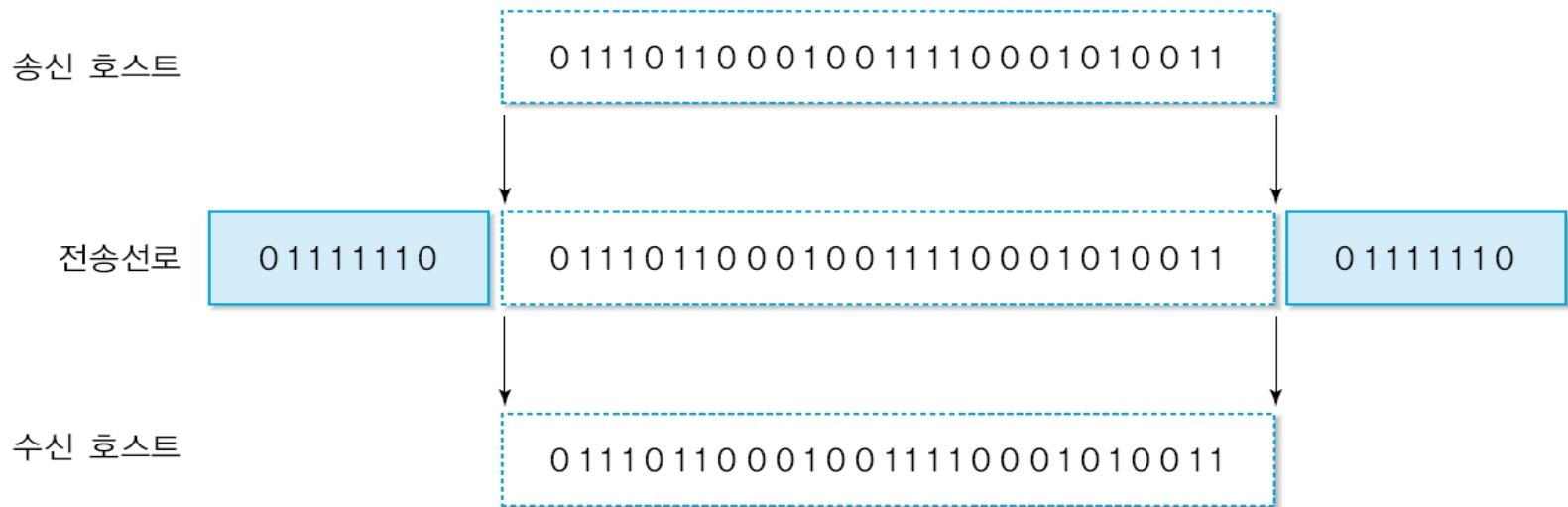


3절. 프레임

□ 비트 프레임(Bit Frame)

- 프레임을 문자 단위로 해석하지 않음
- 프레임의 시작과 끝을 구분하기 위하여 플래그 (01111110) 사용
- IBM의 SDLC 및 ISO의 HDLC/ITU-T의 X.25 프로토콜 사용

■ 프레임의 구조 [그림 4-15]



[그림 4-15] 비트 프레임의 구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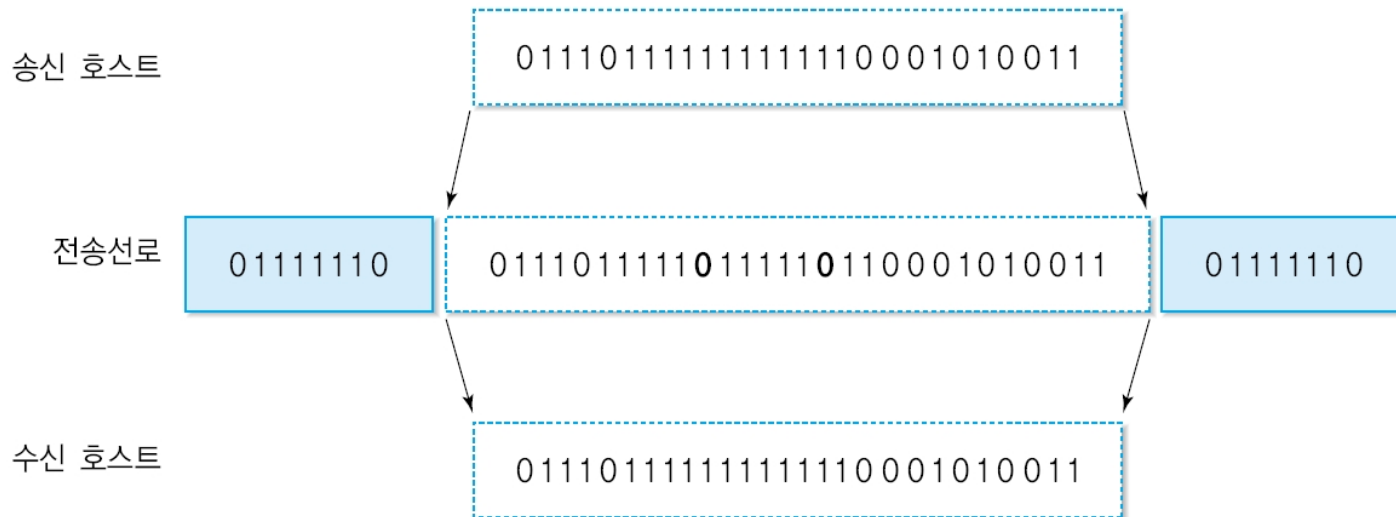


3절. 프레임

□ 비트 프레임

■ 비트 스템핑 (Bit Stuffing) [그림 4-16]

- 전송 데이터에 **플래그 패턴이 포함되면 혼선이 발생**
- 송신 호스트: 데이터에 1 이 연속해서 5번 발생하면 강제로 0을 추가
- 수신 호스트: 데이터에 1 이 연속해서 5번 발생하면 이어진 0을 제거



[그림 4-16] 비트 스템핑



3절. 프레임

□ LAN에서 MAC 계층의 프레임(참고)

- PDU의 길이(데이터 필드의 크기)를 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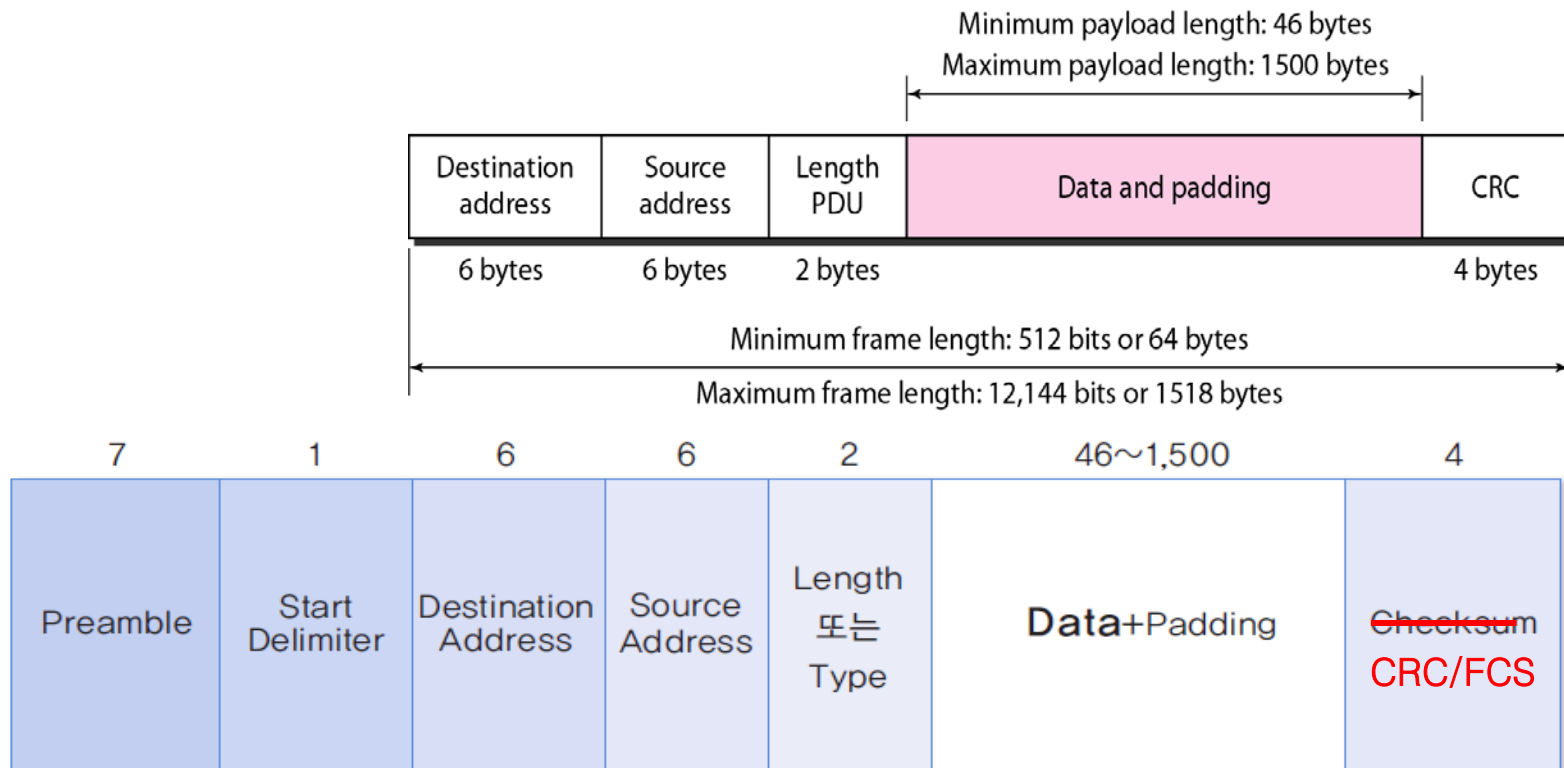


그림 5-7 이더넷 프레임의 구조

- Preamble: 수신 호스트가 송신 호스트의 클럭 동기를 맞추는 용도, 10101010
- Start Delimiter: 프레임의 시작 위치 구분, 10101011



4절. 다항 코드

- 순방향 오류 복구(FEC, Forward Error Correction)
: **오류 복구 코드를** 이용해 수신 호스트 스스로 오류를 복구
- 역방향 오류 복구 (BEC, Backward Error Correction)
ARQ(automatic Repeat reQuest)
: **오류 검출 코드를** 이용해 수신 호스트가 송신 호스트에게 오류를 통지

□ 오류 검출

- 패리티 (Parity)[그림 4-17]
 - 1 바이트 = 7 비트 ASCII 코드 + 1 비트 패리티
 - 짝수 패리티: 1의 개수가 짝수가 되도록 패리티를 지정
 - 홀수 패리티: 1의 개수가 홀수가 되도록 패리티를 지정
 - **송신 호스트와 수신 호스트는 동일한 패리티 방식을 사용해야 함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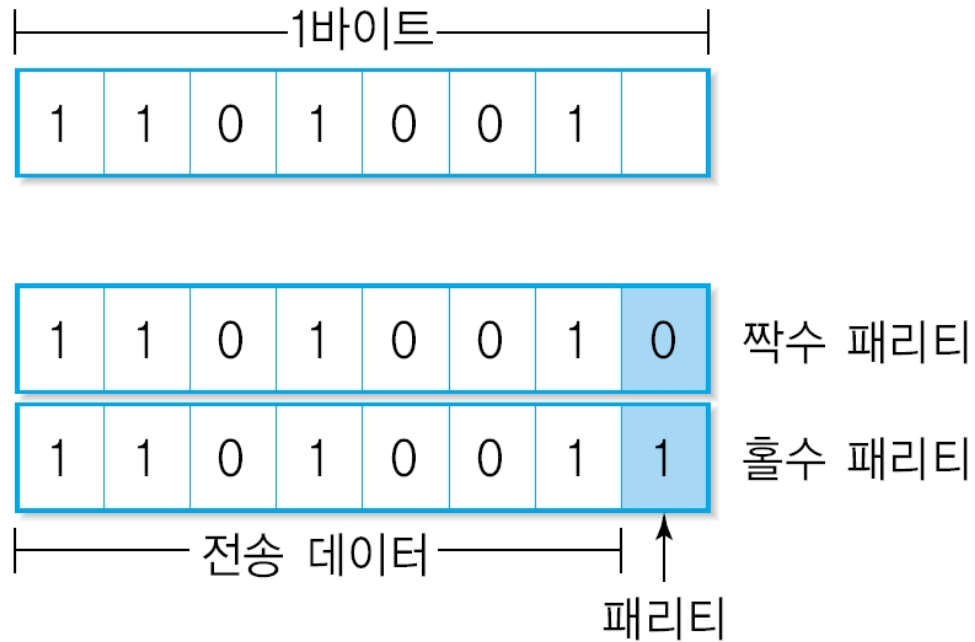


4절. 다항 코드

□ 오류 검출

■ 패리티 [그림 4-17]

- 전송 과정에서 홀수개의 비트가 깨지면 오류 검출 가능
- 전송 과정에서 짝수개의 비트가 깨지면 오류 검출 불가능



[그림 4-17] 패리티 비트



4절. 다항 코드

□ 오류 검출

■ 블록 검사(Block Sum Check) [그림 4-18]

- 짝수개의 비트가 깨지는 오류를 검출
- 수평, 수직 방향 모두에 패리티 비트를 지정

0	1	0	0	1	1	0	1
1	1	0	1	0	0	1	0
0	0	1	1	0	0	1	1
1	1	0	1	1	1	1	0
1	1	1	0	1	0	1	1
0	1	1	1	0	0	1	0

1	1	1	0	1	0	1	1
---	---	---	---	---	---	---	---

블록 검사

[그림 4-18] 블록 검사



4절. 다항 코드

□ 다항 코드(Polynomial Code) 방식 혹은 CRC(Cyclic Redundancy Code)코드 → FCS(Frame Check sequence)라고도 함

■ 생성 다항식

- 다항코드 100101 = 생성 다항식 $x^5 + x^2 + 1$
- 전송 데이터: m 비트 크기의 $M(x)$
- 생성 다항식: $n+1$ 비트 크기의 $G(x)$
- 체크섬
 - 전송 데이터와 생성 다항식을 이용하여 계산 [그림 4-19]
 - n 비트 크기
- 송신 호스트: “전송 데이터 + **FCS**”을 수신 호스트에게 전송
- 수신 호스트: “전송 데이터 + **FCS**”을 생성 다항식으로 나누어 결과를 확인
 - 나머지가 0 이면 전송 오류가 없는 경우
 - 나머지가 0 이 아니면 전송 오류가 있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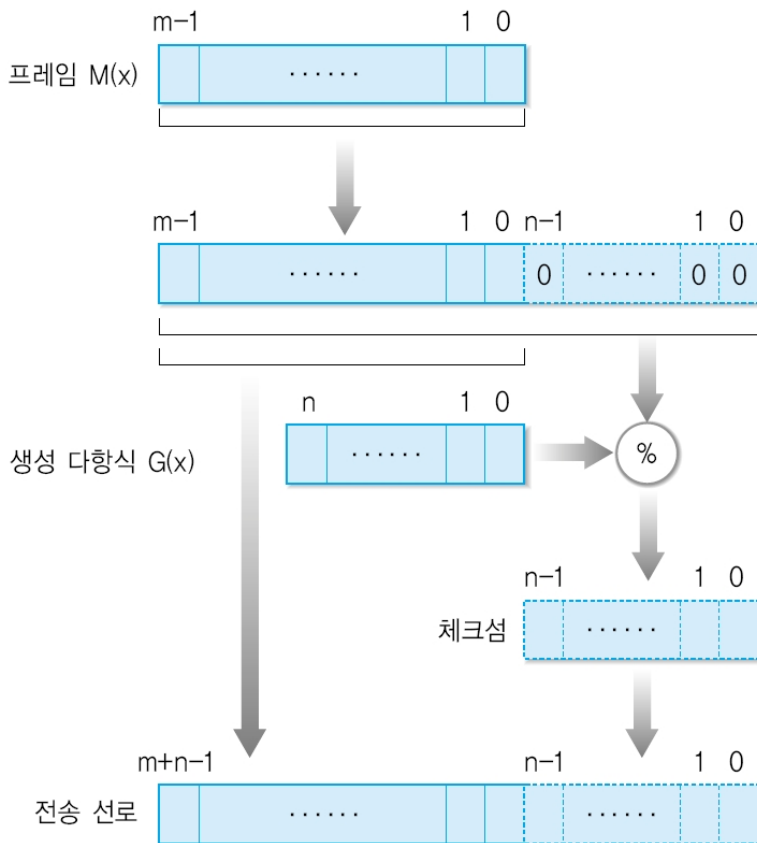


4절. 다항 코드

□ 다항 코드

■ 생성 다항식

- 나머지 값 계산 원리 [그림 4-19]



[그림 4-19] 생성 다항식



4절. 다항 코드

□ 다항 코드

■ 생성 다항식

- 나머지 값 계산 과정에서 뺄셈 연산 방법
 - 모듈로-2 방식을 사용
 - 두 수가 같으면 0
 - 두 수가 다르면 1
- 모듈로-2 방식
 - 덧셈의 자리 올림이나 뺄셈의 자리 빌림이 생략됨
 - 덧셈과 뺄셈 모두 배타적 논리합 (Exclusive OR) 연산과 동일

```
100111101101
-110001110110
=====
010110011011
```

```
100111101101
+110001110110
=====
010110011011
```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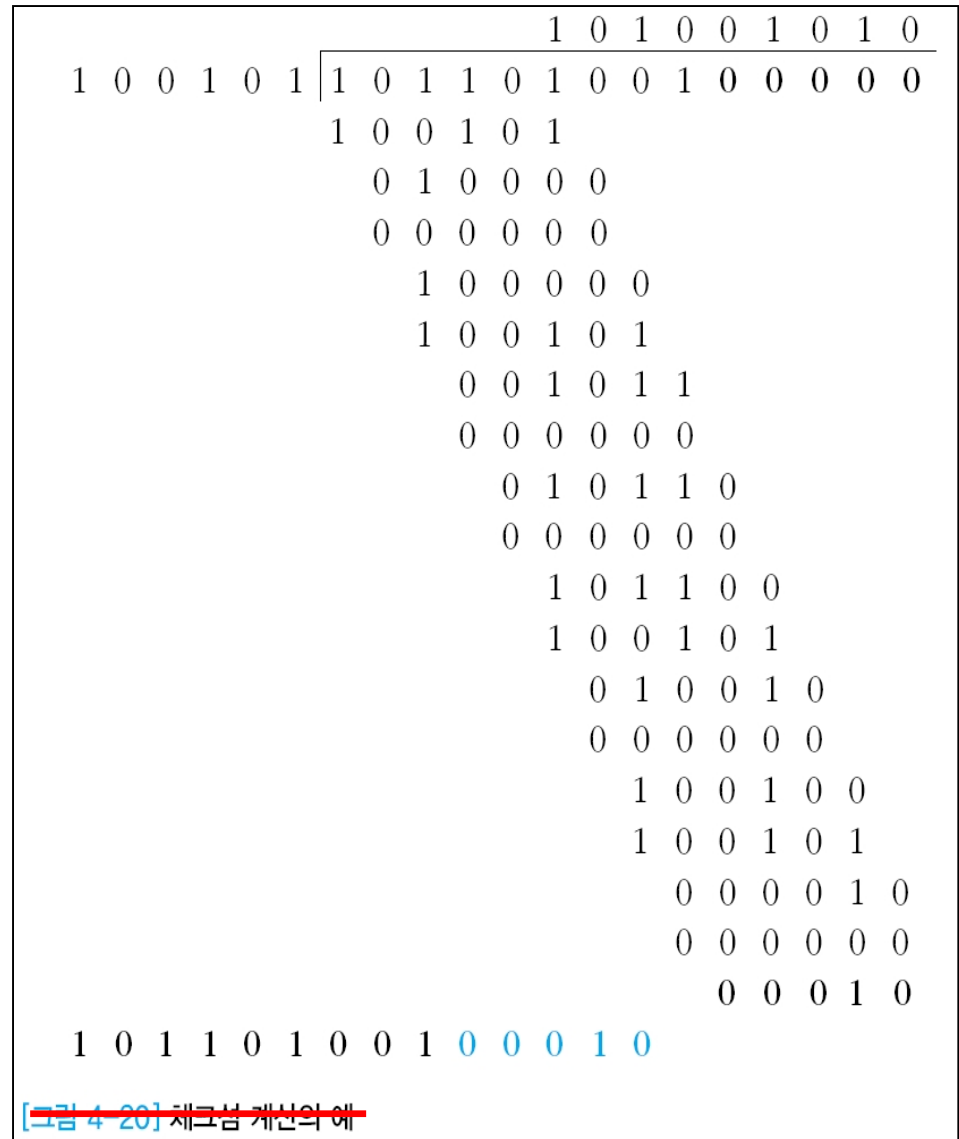
4절. 다항 코드

□ 다항 코드

■ CRC 코드 작성의 예

- 생성 다항식 $G(x) = x^5 + x^2 + 1$
- 전송 데이터: 101101001
- 나머지 값: 00010
- 나머지 값 = CRC 코드 값
= FCS 값

나머지 값을 체크섬(checksum)
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음



4절. 다항 코드

□ 다항 코드

■ CRC 코드(혹은 FCS)의 예

- CRC-12: $x^{12} + x^{11} + x^3 + x^2 + x^1 + 1$
- CRC-16: $x^{16} + x^{15} + x^2 + 1$
- CRC-CCITT: $x^{16} + x^{12} + x^5 + 1$ (HDLC)
- CRC-32 : $x^{32} + x^{26} + \dots + x + 1$ (LAN) - 4 바이트
(데이터 링크 계층 및 SCTP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도록 권고)

그러나 ICMP, TCP, UDP 프로토콜 등에서는 검사합(checksum) 기법을 사용함

